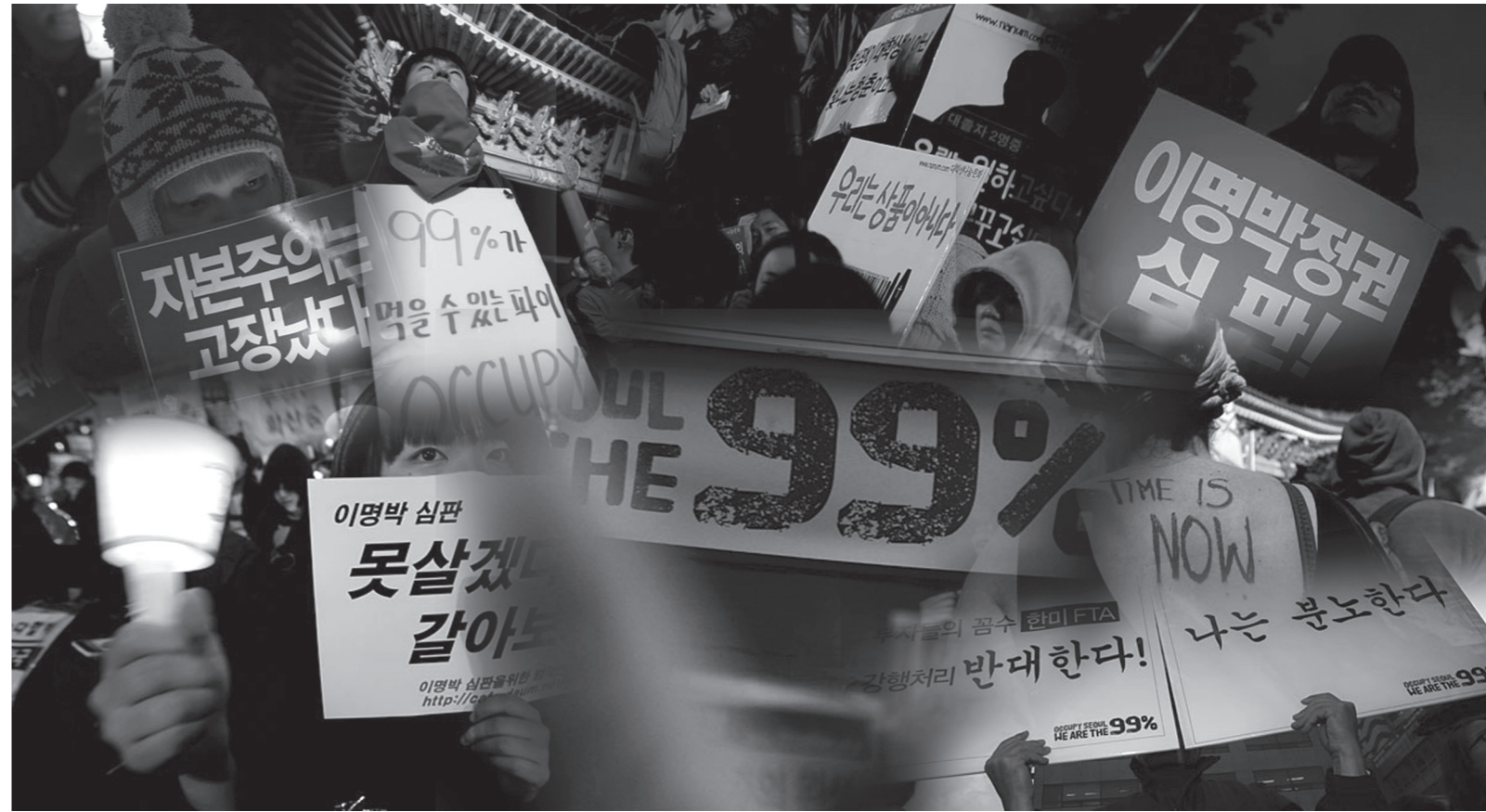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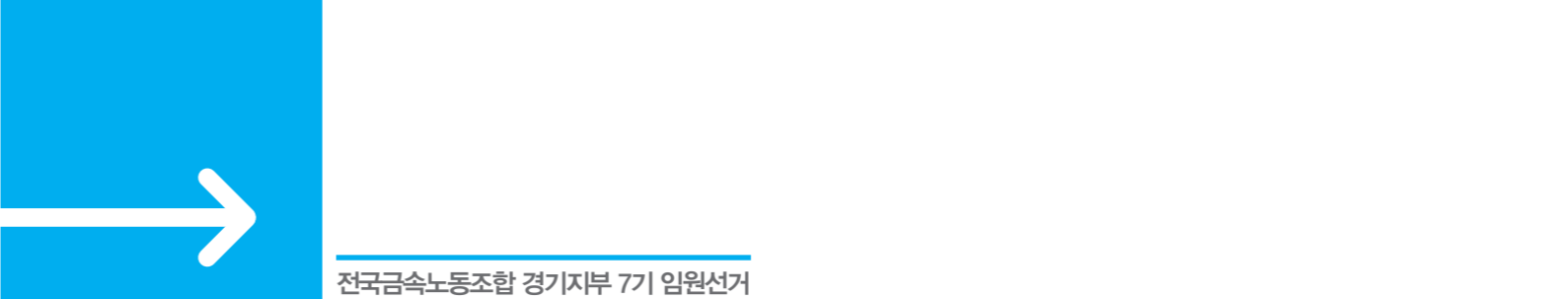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독일에 처음 나치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엔 사회주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노동 운동가들을 잡아갔습니다.
나는 이때도 역시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교도들과 기독교인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이웃들이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내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침묵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가족들이 더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에밀 구스타프 프리드리히 마틴 니묄러 1892~1984



공포를 넘어 **다른 세상으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와 용기를 한데 모아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내고
창조적인 노조활동으로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공포를 넘어 다른 세상으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난 2년 경기지부 6기 지도부는 '지역총파업-총궐기'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업장 간부들 사이의 친화력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지만 정작 조합원 동지들과 부대끼며 마음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력도 부족했습니다. 7기 지도부 후보로 나온 저희들은 6기의 사업방향을 계승하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세계 자본주의의 무한경쟁, 착취 시스템에 대해 전 세계에서 노동자, 민중의 저항이 터지고 있습니다. 안철수라는 새 인물이 등장하니 한나라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가 요동을 칩니다. 견고하기만 했던 부자를 위한 정치, 경제 시스템이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낡은 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선덕여왕'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실을 포위한 덕만공주가 "성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을 퍼트려자 대야성에 있는 미실의 군대와 백성들이 일대 혼란에 휩싸이고 병졸(군인)들의 탈영이 속출하여 마침내 미실의 군대는 속절없이 패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무너져버린 이유가 바로 내부로부터의 공포감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나라도 살고 봐야지...' 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조직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요? **적은 우리 내부, 마음에 있는 건 아닐까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개인과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은 일대 격변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지혜와 용기를 한데 모아 두려움과 공포(불안)를 떨쳐내고 창조적인 노조활동으로 다른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지부장 후보
이기만

수석부지부장 후보

윤옥동

사무국장 후보

이선자

지역 총파업, 전망이 아닌 현실로!



1 부지부장 후보 **원용훈**

경기지부 부지부장 후보로 나서기 까지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조건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사업장이 그동안 지역에서 치열하게 연대하고 투쟁했던 경기지부 동지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성찰과 반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을 함께 채우는 것이 노동자의 힘이다" "노동자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한 싸움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주변의 충고와 격려를 가슴에 새기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노동자를 공격하고 고통을 전가함으로써 파탄난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본에 맞서 지역 총파업, 지역 총궐기를 만들기 위한 경기지부 투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금속산별을 건설하면서 꿈꿔왔던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가 말로 끝나지 않고 경기지부에서부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겠습니다. "저들 자본이 옳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가 연대하지 못해 깨진다."는 김진숙님의 말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깁니다. 조합원동지들을 만날 때는 한없이 낮게, 자본과 싸울 때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운다는 마음으로 현장을 활동의 등대로 삼고, 지부 조합원의 목소리를 활동의 지침으로 삼아 조직하고 투쟁하겠습니다.

다가올 어려움, 몸으로 부딪쳐 넘겠습니다!



2 부지부장 후보 **장혜경**

이번 경기지부 7기 부지부장 후보 장혜경입니다

6기 경기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 하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2010년 파카한일유압 교섭단 활동을 시작으로 주연테크 투쟁과 수원역 공동실천 투쟁을 진행하며 처음엔 낯설게만 느꼈던 각 지회 조합원 및 간부들과 함께 수원역에서 경기지부가 총력을 모아 지역총궐기 투쟁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투쟁을 이어 왔습니다.

2010년 타임오프의 쟁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2012년 투쟁 또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문제로 인해 전국의 산별노조 운동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어느 때 보다 쉽지 않은 싸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지부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는 6기에 이어 7기 경기지부 부지부장으로 활동을 이어 가고자 나왔습니다. 7기에는 6기에서의 활동을 발판 삼아 열심히... 동지들과 함께 더욱 굳건한 경기지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몸으로 부딪치며 동지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강한 민주노조를!



3 부지부장 후보 **이승현**

경기지부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경기지부 제7기 부지부장 출마를 하게 된 대원산업 안산지회 조합원 이승현입니다.

지역의 선배 열사와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보자며 만드신 민주노조를 계승하고자 부지부장으로 출마하였습니다.

투쟁하다 산화해 가신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회에서만이 아니라 경기지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려 합니다.

지역에 경험 많고 지식도 풍부한 선배 노동자 동지들도 많이 계신데 젊은 제가 출마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열심히 배우고자 노력한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